

‘첫 승’ 짚었던 이기형 감독, 첫 홈장승은 다음 기회에

—연변팀, 잔류 임무 남은 청도홍사와 0대0 무승부

이기형 감독이 홈에서 ‘첫 승’ 승전고는 올리지 못했지만 연변팀은 홈에서 승점 1점을 챙겼다.

10월 19일 3시에 연길시전민건강체육장에서 진행된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28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은 청도홍사팀(이하 ‘청도팀’)과 0대0으로 손잡았다.

이날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이기형 감독 체제에서 첫 홈장승을 수확하는지 여부였다. ‘명예전’에서 이기형 감독은 4-2-2-2 전형을 선보였다. 지난 경기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임준화와 로난을 투입으로 최전방에 배치하고 그 뒤를 아블레다, 왕성괘, 리룡, 리강이 뒤받침했으며 서계조, 리달, 왕봉, 김태연이 수비라인을 구축했다. 키퍼 장갑은 다시 동가림이 착용했다.

로난과 아블레다가 나란히 선발로 출전했고 지난 경기를 결장했던 김태연도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의 홈장에서 조금만 쪽은 청도팀이었다. 잔류를 확정지은 연변팀에 반해 아직 강등권에서 허덕이는 청도팀은 이번 경기를 포함해 3경기를 남겨놓고 갈길이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전 소식공개회에서 이기형 감독이 ‘첫 홈장승’을 언급했던 만큼 연변팀도 물러설 수 없는 경기였고 각자 목표가 뚜렷한 두 팀은 시작부터 강렬하게 맞붙었다.

주도권 확보에 시동이 걸리면서 연변팀은 12분경에 아블레다가 속도를 내세워 문전까지 쇄도해 들어가면서 슈트를 때렸지만 상대팀 키퍼가 막아냈다.

청도팀도 인츰 반격을 가했다. 17



분경 연변팀 문전까지 밀고 들어온 청도팀이 짧은 패스를 이어가다 장하일이 갑작스런 슈트를 날렸지만 동가림이 선방으로 쳐냈다.

팀의 운명이 걸린 경기인 만큼 청도팀은 간절하게 압박하며 공격적으로 몰아붙였다. 이에 연변팀은 파동에 처하며 뒤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많은 시간을 수비 태세로 람했다.

아블레다의 속도가 빛을 발하며 몇 번의 돌파가 있긴 했지만 위협적인 공격 포인트를 쌓지 못했고 로난과 아블레다도 상대팀 문전까지 이어지는 그렇다 할 배합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청도팀이 전반전에 4회의 유효 슈팅을 뽑아낼 동안 연변팀은 슈팅만 3번, 유효 슈팅은 제로였다. 특히 청도팀의 유효 슈팅 4회 모두 몹시도 아슬아슬했는데 동가림이 4번 모두 빛나는 선방쇼를 이어갔다.

동가림의 대활약으로 연변팀은 골문을 지켜내며 전반전을 잠시 0대0으로 마쳤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연변팀은 임준화와 왕성괘를 빼고 천창걸과 리세빈을 투입하며 변화를 주었다.

로난과 아블레다의 돌파가 잇달아 나오며 연변팀의 공격 포인트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로난의 침투 또한 오프사이드에 걸렸지만 연변팀은 상대의 문전을 뒤흔들며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이어 56분경, 팬참은 위치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은 연변팀은 지난 경기에서 프리킥 직접 골을 터뜨렸던 리룡이 재차 공 앞에 나섰고 힘껏 차올린 공이 코너킥으로 이어졌다.

두 팀 서로 공격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듯 보였지만 경기의 흐름은 다소 잔잔하게 흘렀다.

그러다 70분경 연변팀은 로장 김태

연을 U-21 선수 허문광으로 교체하며 분위기 반전을 꾀했다.

연변팀은 측면을 활용해 전진 패스를 시도하며 전방의 로난과 아블레다로 연결되는 공격 활로를 뚫으려 했지만 마지막 한방 부족으로 문전을 위협하지 못했다.

71분경 리강이 왼쪽 측면에서 올려준 크로스를 아블레다가 받아 슈팅을 쏘아올렸다. 하지만 공이 높이 뜨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청도팀도 역습을 발동해 연변팀의 문전까지 밀고 들어오는 기세를 내뿜었다. 연변팀의 수비에 걸리고 동가림의 선방에 막히며 두 팀 모두 0대0 상황을 팽팽하게 이어갔다.

아블레다의 개인기와 속도에 상대 수비수들은 직접적인 반칙을 내보일 수밖에 없었고 80분까지 여러번의 파울에 시달리던 아블레다를 장오개로 교체하며 연변팀은 재차 교체 카드를 활용했다.

연변팀은 후반전에 들어 전반전보다 활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연출하지 못했다.

후반전에 주어진 추가 시간은 4분, 청도팀은 마지막까지 반격의 의지를 보이며 연변팀의 문전을 위협했고 동가림이 전반전에 이어 후반전에도 대활약을 선보였다.

연변팀 또한 홈장승을 향해 끝 에너지를 모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골문은 열리지 않았고 두 팀은 최종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제 연변팀은 10월 26일에 원정에서 광주 구락부팀과 제29라운드 경기를 펼친다.

/ 김가혜 김파 기자



[독특 관전평]

빛났던 동가림의 선방쇼 덕에... 그리고 그 리면



키퍼 동가림의 빛나는 선방쇼 끝에 연변팀은 홈에서 승점을 챙길 수 있었다.

10월 19일 연길시전민건강체육장에서 진행된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28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은 강등권에서 허덕이는 청도홍사팀(이하 ‘청도팀’)과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을 더했다.

리그 잔류 임무를 일찌감치 완수한 연변팀에게 이기형 감독의 안방 ‘첫 승’이 걸린 경기였고 팀의 운명이 걸린 청도팀에게 승리가 필요했던 ‘생사전’이었다.

그만큼 절박한 청도팀의 공세가 우리 팀의 홈장 우세를 제압했다. 전반전에 연변팀은 유효 슈팅(슈팅 3회)이 단 한번도 없었다. 반면 청도팀은 58%의 공 점유율로 슈팅 5회를 유효 슈팅 4회로 런결시키는 공격력을 보이며 연변팀 문전에서 간담이 서늘해지는 장면을 수차 연출했다.

그리하여 아슬아슬했던 4번의 유효 슈팅을 모두 선방으로 막아낸 동가림의 활약이 전반전을 화려하게 빛냈다. 동가림은 놀라운 집중력과 반사신경으로 연달아 공을 쳐내며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후반전에 돌입해 연변팀의 공격력이 다소 살아나긴 했지만 조금만 청도팀도 뒤질세라 몰아붙였다. 연변팀의 점유율이 올라오고 슈팅도 5회 추가되며 공격 의지를 보였지만 청도팀 역시 슈팅 6회를 만들어냈다. 절대적인 기회가 더 많았던 청도팀은 그러나 우

리의 수비벽에 걸리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던 동가림의 안정적인 선방에 막히며 대신 후반전엔 유효 슈팅을 1회 밖에 만들어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투지가 만만치 않았던 청도팀은 결정력 부족으로 서러움을 삼켰고 연변팀은 키퍼의 선방쇼가 한몫하며 홈장 무실점을 사수했다.

키퍼의 대활약이 이끈 무실점이 기꺼운 한편 그 리면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경기 내내 키퍼가 계속 빛났다는 건 그만큼 연변팀이 수세에 몰렸고 문전이 혼란을 맞았다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더불어 원활하지 않았던 중원 장악 등 문제점들이 로출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지나간 경기는 지나간 경기이다. 면밀히 점검해보고 보완 대책을 세워 다음 경기를 맞이하는 게 급선무, 올 시즌 연변팀은 이제 두번의 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이기형 감독도 이번 홈장전에 앞서 열린 경기전 소식공개회에서 첫 홈장승을 언급한 바 있을 만큼 팬들 뿐 아니라 감독 진도 승리에 대한 열망이 크다.

잔류 임무를 벗어던진 채 휴가분해진 연변팀의 ‘첫 승’을 마지막 홈장(11월 3일)에서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그전에 연변팀은 올 시즌 슈퍼리그 진출을 건넌 나여린 광주구락부팀과의 원정 경기(10월 26일)를 앞두고 있다.

남은 두 경기에서의 연변팀의 원만한 올 시즌 마무리를 기원한다.

/ 김가혜기자

[감독초대석]

이기형 감독 “승리하지 못해 아쉽다”

10월 19일 3시, 연길시전민건강체육장에서 펼쳐진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28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팀은 청도홍사팀과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로써 이기형 감독의 홈장 ‘첫 승’은 다음 홈경기로 미뤄지게 되었다.

경기후 열린 소식공개회에서 이기형 감독은 “홈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해 팬들에게 죄송하다. 추운 날씨에 최선을 다한 선수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전하고 나서 “전반전에 상대의 압박을 풀어나가는 면에서 부족했다. 후반전에는 탈압박이라든지 좋은 찬

스 등을 많이 만들었는데 득점하지 못해 아쉬웠다.”며 경기에 대한 총평을 전했다.

이어 “남은 경기를 잘 준비해서 좋은 승점으로 시즌을 잘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파기자

중국체육복권 2024년 연변장기선수권대회 개최



경기의 한 장면

중국체육복권 2024년 연변조선족자치주장기선수권대회가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연길시 건원상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연변조선족자치주사회체육관리센터에서 주최하고 연변체육복권관리센터와 연변조선족자치주장기협회에서 주관한 이번 년도 장기선수권대회에는 전 주 8개 현시와 부분적 향진, 그리고 연변대학에서 온 70명에 달하는 장기선수가 참가하였다. 연변대학은 처음으로 4명의 선수로 팀을 구성하고 대회에 참가했는데 평균연령이 19세였다.

이번 대회는 공개조와 로년조로 나뉘어 9라운드 컴퓨터 적분제 순환경기 규칙을 채택했다. 이를 동안

243차례의 멋진 대국을 거쳐 각 조의 단체 순위와 개인 성적 순위를 내왔다.

경기 결과 공개조에서는 돈화시의 단지원, 훈춘시의 전소산, 왕청현의 전위 등이 1등부터 3등까지 차지하고 왕청현, 풍정시, 연길시가 단체 1등부터 3등까지 차지했다. 로년조에서는 연길시의 형강, 화룡시의 왕권무, 돈화시의 류준우가 1등부터 3등을 거머쥐고 연길시, 화룡시, 복동진이 단체 1등부터 3등까지 차지했다. 우수조직상은 안도현에서 획득했다.

/ 안상근기자, 최승진



정흠문, 처음으로 WTA 연말 결승전 진출

미국 선수 나바로가 최근 여자테니스선수협회(WTA) 네파오픈과 도포오픈을 잇달아 포기함에 따라 승점 면에서 현재 우승 포인트 순위 7위를 기록중인 정흠문을 포인트 차로는 따라잡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정흠문이 2024년 WTA 연말 결승전 출전권을 확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중국 테니스 오픈 4강과 무한오픈에서 준우승하며 직접적으로 나바로와의 포인트 격차를 벌려놓은 데다 나바로의 출전

철회가 정흠문에게는 결정적이었다. 이로써 정흠문은 2013년 리나 이후 WTA 연말 결승전 여자 단식경기에 출전하는 중국 선수가 되었다.

WTA 결승전은 이번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둔 상위 8명만이 출전할 수 있는 왕중왕전이다.

올해 여자 테니스 왕중왕을 가리는 2024 WTA 결승전은 11월 2일부터 9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서 열린다.

/ 신화사 종합



장춘아태, 청도서해안에 4대0 대승...

슈퍼리그 잔류 확정



10월 19일, 중국 슈퍼리그 제28라운드 경기에서 장춘아태팀은 홈장에서 청도서해안팀과 맞붙었다. 90분의 치열한 경기 끝에 장춘아태는 베리치의 2골, 소조와 세르지뉴의 1골로 청도서해안을 4대0으로 완승하고 2라운드 앞당겨 잔류에 성공했다.

경기 선발에 장춘아태는 5명의 외국인 선수를 모두 내보냈고 청도서해안은 부상 원인으로 3명의 외국인 선수를 출전시켰다.

외국인 선수가 많은 우세로 장춘아태는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았고 경기 시작 8분 만에 세르지뉴의 슈이 풀대를 약간 빗나가면서 상대팀에 압력을 가했다. 전반전 막바지에 이르러 장춘아태는 프리킥 기회를 리용하여 공을 문전으

로 올렸고 소조가 헤딩슛으로 골을 뽑으면서 전반전에 1대0으로 앞섰다.

후반전 55분, 장춘아태가 반격을 발동했고 세르지뉴가 상대팀 수비선을 뚫고 베리치에게 공을 넘긴 것을 베리치가 키퍼를 따돌린 후 풀로 성공시키면서 점수를 2대0으로 확대했다. 61분경, 장춘아태의 세르지뉴가 한골을 더 추가하면서 점수 차이가 한층 더 벌어졌다. 경기 추가 시간에 베리치가 다시 한번 득점을 완성했다. 장춘아태는 홈장에서 청도서해안을 4대0으로 제압하며 팀의 잔류에 중요한 승점 3점을 챙겼다.

/ 정현관
류항휘 기자

